

K-컬처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문미리 경남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는 2020년 12월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 조셉 나이의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적용해 K-컬처가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이슈가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는 것을 고려해, 미·영 언론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반동 사상문화'는 주로 한국, 미국, 일본의 문화를 뜻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케이팝(K-pop)이 북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또한, 외신 보도에서는 데일리NK와 자유 아시아 방송에 보도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집행 사례나 그 법의 전문 내용에 관한 보도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어 : K-컬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케이팝(K-pop), 소프트파워, 북한 밀레니얼 세대

I. 서론

전 세계가 K-컬처(K-Culture)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케이팝(K-pop), K-드라마(K-drama), K-영화(K-movie)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Parasite)’이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최초로 수상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인 2021년 영화 ‘미나리(Minari)로 영화배우 윤여정의 최초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동시에 2015년에 발표하고 2016년 한국에 론칭한 넷플릭스에서 2021년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 역사를 쓰면서 국내외 언론은 K콘텐츠가 전 세계인을 사로잡았고, 소셜미디어를 점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지영 2021; Vineyard 2021).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된 BTS가 몇 멤버의 군입대로 지금은 휴식기를 갖고 있지만 정국의 첫 솔로 데뷔 싱글 ‘세븐(Seven,feat.Latto)’이 미국 빌보드차트 ‘핫 100 (Hot100)’에서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에서 한류의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SBS 뉴스 2023/7/25).

이처럼 글로벌 문화-예술 콘텐츠의 허브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K-컬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한류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문화의 흐름과 역행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나라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남한과 북한은 반만년 동안 같은 문화권에 거주하면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유해 왔다. 이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음악회 및 스포츠를 통해 남북 교류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12월 4일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노래 등 K-컬처가 방영된 미디어 텍스트를 유입하거나 유포한 사람에 대해 최소 5년에서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이나,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이 법의 시행전인 약 5년간(2016~2020) 북한이 제시

한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의 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주목할만한 성과는 없었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비상방역사업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지만 지난 제7차 대회에서는 사회문화 분야에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채택된 배격법 제정은 앞으로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사상과 행위를 더 강하게 통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제한·최지영·정은미·정은미·조정아 2021).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23년 8월 24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 축사에서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언급하며 이 법이 자유와 인권을 향한 그 동안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그 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것은 역으로, 한류가 북한 주민들에게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이미 북한 내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김호준·하채림 2023).

언론은 현실의 사회적 구성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이다 (Tuchman 1978). 즉, 뉴스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를 뉴스로 제작해 현실을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뉴스는 그 사회의 문화와 독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게 된다. 디지털화로 인해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고, 미디어의 플랫폼은 다매체, 다채널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포털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생겨났지만, 언론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과학, 헬스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16). 때문에 뉴스미디어가 무엇을 어떻게 보도하는가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엘리트층이나 정부,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이슈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Entman 1993; McCombs & Shaw 1976). 이에, 언론학 뿐만 아니라 교육학, 북한학,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도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담론에 나타나는 내용의

패턴과 특징을 분석해 그 사회가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관한 융합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수정 2008; 선상신·김성해 2011; Kim 2014).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2020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데일리NK가 그 법의 전문을 최초로 입수해 2023년 3월 보도했다 (장슬기 2023). 선행연구는 이 법의 전문이 입수되기 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형사적 책임에 대한 규정과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되어 형을 집행한 사례를 국내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해 연구했다(한명섭 2022). 이 법이 북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북한인의 인권문제 차원에서 정보접근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특히,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명섭 2022).

주지하는 것처럼, 핵을 포함해 북한 이슈는 대한민국의 단독적인 이슈가 아닌 국제 사회적 이슈이다 (이완수·손영준 2011). 미국과 북한 간 이루어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결실이 수퍼파워인 미국의 역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에 앞서 첫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전문을 분석해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둘째, 포스트 공산주의와 준 사회주의체제를 기본으로 북한의 김 씨 일가 체제를 운영하고 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중추적인 사상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K-컬처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북한 문제에 있어 핵심 주체 중 하나인 미국언론에서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관한 분석을 할 것이다. 다양한 미 언론보도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사회와 그 사회의 정책결정자인 정부와 시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고찰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분단된 한반도의 현재 정세와 국제 사회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먼저 이론적 논의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이 법의 원칙과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II.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

데일리NK가 최초로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에 관한 2023년 3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장슬기 2023), 전문은 총 4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1~7조)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정의와 목적, 2장(8~14조)은 반동사상문화의 유입 경로 차단 의무, 그리고 제3장(15~26조)은 미디어매체를 나열하면서 반동사상문화관련 시청 및 유포를 금지, 제4장(27~40조)은 이를 위반할 경우 따르는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제1장 제2조에서는 반동사상문화는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으며 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있지 않은 포괄적 범위에서의 ‘적들의’ 사상문화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사상 교양을 강화해 이 문화의 효과를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7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어길 시 이러한 법적 제재를 통해 어떤 강력한 처벌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처벌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에서는 구체적으로 반동사상문화를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5조에서는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7조에서는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강력한 처벌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법안에서 처벌원칙이 강력해지고 있지

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출판 및 미디어 매체물을 유입,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원칙이 2021년 수정되면서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으로 수정되었으나 2022년 다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수정되었다. 전제적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핵심 내용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2조: 정의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5조: 목적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젓지 않도록 한다.”
7조: 처벌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27조: 괴뢰사상 전파죄	(이전) “괴뢰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021년 수정)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며 집단적으로 그것을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022년 수정)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8조: 적대국 사상 문화 전파죄	“적대국의 영화나 녹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9조: 성녹화물, 색정, 및 미신 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32조: 괴뢰문화 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방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인해 크게 달라진 점은 문화사상 관련 규제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도입되면서 과거 미디어 콘텐츠가 퇴폐적이거나 적대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규제되었던 것에서 그 범위를 확장해 내용의 수위와는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제작된 도서, 그림, 사진과 같은 출판물이나 영화나 영상물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는 모두 규제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한명섭 2022). 또한, 처벌 범위도 최고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으로 처벌했던 것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하는 등의 처벌을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제19조 제3항 북한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유권규약’에 근거해 지나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특히 사형 집행은 자유권규약에 대한 위

반이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명섭 202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진아(2020)는 북한 헌법 규정을 다양한 부문법을 적용해 정보접근권을 분석하고 북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문화 예술과 같은 다양한 정신활동에 대한 자유 및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인권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장되고 또 제한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이를 위해 박진아(2020)는 북한의 부문법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정보접근 관련 부문법 중 (가) 신문 및 출판물에 관한 부문법 (나)방송법 (다) 컴퓨터망에 의한 정보접근 관련 법제도에 주목했다. 신문, 방송 및 인터넷은 핵심적인 정보접근법의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와 가장 부합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소통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과 같이 뉴스나, 음악, 이미지, 영상물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곧 미디어의 사전적인 정의이며 미디어는 개인이 메시지를 주고 받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매개하는 매개체가 된다(McQuail 2010). 결국 표현의 자유에 기본적인 권리가 되는 정보접근권은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고 또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보내는 즉, 메시지를 주고 받는 상호 소통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부문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해, 북한 주민이 미디어를 통해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또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는가는 정보접근권과 곧 그 토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또 동시에 제한하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이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인 미디어 이용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 법률적 근거를 뜻하고 동시에 정보접근권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시행하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유엔(United Nations) 웹사이트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정보접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영문과 함께 국문으로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UN Websit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박진아(2020)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로서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접수할 자유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서도 반복되며, 다른 인권협약의 표현의 자유 조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2020, 44)고 밝혔다. 정보의 자유, 정보접근, 정보권, 그리고 정보를 추구할 권리, 알 권리 등 국내에서는 정보접근권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나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정보접근권을 독립적인 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정보접근권의 토대가 되는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생명권과 차별금지법이나 사생활의 권리목록을 통해 정보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장 상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헌법 제64조에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이무를 제63조에 규정하는 것처럼 “개인이 전체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을 동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의 해석과는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북한의 법체계와 규정을 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북한에 대해 인권 관련 개선점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과 규정에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북한의 관련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사하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알려져 있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는 다른 사회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화, 글로벌화된 ‘고도의 현대화’(Hyper-modern) 된 세계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Giddens & STAIR 2017). 즉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명시하는 적대국가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다른 국가의 현실과 문화를 반영하는 미디어물이 디지털화 되어 파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어 북한 주민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Castells 2011).

카스텔(Castells 2011)은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는 행위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파워 게임을 하게 되는데, 특히 개인 행위자나 기관이 더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나 이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해 사람들의 마음이나 인식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현실과 여론을 반영하는 뉴스 미디어 콘텐츠는 그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뉴스가 특정 이슈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화 관련 콘텐츠의 영향력은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잘 알려져 왔다(Nye 2004).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OTT(오버더톱, Over the top)의 발달로 전 세계가 더 가깝게 더 빠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은 더 빠르고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소프트 파워의 정의를 검토해 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강력한 문화 관련 법적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Ⅲ. 이론적 논의

1. 미국 문화 상품의 ‘소프트 파워’

주지하는 것처럼 조셉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국제 관계 분야를 연구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아 왔다(Nye 1990). 20세기 후반에 소개된 소프트파워는 "하드 파워(Hard power)"라고 불리는 군사력 및 경제적 강압과 연관된 국제 정치의 전통적인 권력 이해와는 상이하다(Nye 2004). 소프트파워는 한 국가가 강압이 아닌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 국가의 선호를 형성하게 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소프트파워는 한 국가의 문화, 정치, 외교 정책에서 비롯되는 여러 정책 결정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설득의 힘이다(Iwabuchi 2002). 본질적으로 소프트 파워는 무력이 아닌 매력을 통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Nye 2004).

방대한 문화적 생산물을 보유한 미국은 소프트파워를 행사하는 국가의 전형적인 예이다(Wagnleitner 1994). 미국 소프트파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는 음악이다. 재즈 시대부터 로큰롤, 힙합, 팝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음악 장르는 전 세계 문화에 스며들어 취향, 패션, 심지어 정치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Mitchell 2001; Von Eschen 2004). 이러한 장르는 미국인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종종 자유, 반항 또는 혁신의 상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ennett 2000).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할리우드(Hollywood)와 디즈니(Disney)와 같은 거대 애니메이션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파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세기에 걸친 영화 제작의 역사를 지닌 할리우드는 미국의 가치, 라이프스타일, 이상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고전 영화부터 "어벤저스"와 같은 최신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블록버스터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흥행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내러티브, 이상, 문화적 규범을 전파해 왔다(Scott 2004). 이러한 영화는 종종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창구 기능을 하여 전 세계 미디어 수용자가 미국 문화, 정치 및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Miller et al. 2005).

또한 디즈니는 전 세계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거물이다.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와 같은 초기 애니메이션부터 "스타워즈"와 "마블"과 같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인수에 이르기까지 디즈니는 전 세계의 어린 시절과 대중문화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재구성해 왔다(Wasko 2001). 테마의 보편성과 스토리텔링에 대한 헌신 덕분에 디즈니는 수많은 국가에서 가족, 우정, 인내와 같은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소프트파워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Giroux 1995). 본질적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미국의 문화 상품은 전 세계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러한 문화상품은 미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파워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와 상상력과 같은 가치를 구현해 제작한 미국 문화 상품은 시청자의 인식에 그 가치를 심어주게 된다. 북한에서도 '겨울 왕국'과 같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상류층 엘리트 자녀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중학교 영어 회화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최재호 2023). 또한 국내외 언론에도 자주 보도된 것처럼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해외 문화에 개방적이며 그의 디즈니사 애니메이션과 디즈니 캐릭터에 대한 애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유대근 2023). 그런데도, '적대국', '제국주의자들'의 음악과 미디어 콘텐츠와 같은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법률적 차단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북한 내 외부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2. ‘반공사상문화배격법’이 적용된 사례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된 사례를 국내 언론사 데일리NK의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 사례가 ‘자유권 규약’과 같은 북한의 다른 법 조항에는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의주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10대 남학생을 부모와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된 사례,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시청해 총살로 공개 처형된 사례,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CD나 메모리에 담아 유포해 직계가족과 함께 공개처형으로 총살을 집행한 사례, 원빈과 김새론 주연의 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한 14세 중학생에게 14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된 사례,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한국 영화 ‘오징어 게임’의 복제본 USB에 담아 고등학생에게 판매한 밀수업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례를 소개했다 (한명섭 2022, 119-122).

한명섭(2022)은 이러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사형집행은 ‘자유권 규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위반이므로 향후 남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과 인권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촉구가 요구된다는 필요성을 논의했다. 즉, 이 법의 적용이 비단 북한당국이 북한 국민에게 처벌하는 북한 내부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인권 존중 규약에 동시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진아 2020).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 한국과 오랜 동맹국이며 북한 문제에 있어 대화와 타협으로 한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해 온 국제 사회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먼저 그 사회를 반영하는 언론보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 언론은 이 법

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목하고 있는 주요 의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즉, 해외 주류언론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보도한 뉴스 담론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V.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외신보도

1. 언론을 통해 본 북한의 사회 및 제도

세계화가 더욱 심화하여 감에 따라, 대부분 국가는 시시각각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글로벌 시민은 시장 개방정책에 따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거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 종종 “블랙박스”처럼 외부인이 해석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Rich 2014, 428; So & Duarte 2020). 따라서 북한에 관한 뉴스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뉴스 정보원의 부족과 사실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뉴스 미디어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엘리트층 및 정책결정자들이 북한 사회에 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개체(mediator)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외신 보도에서도 기사 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북한의 주요 매체이다. 그러나, 주로 북한 뉴스 미디어는 당의 철저한 검열과 홍보로 이루어지는 프로파간다식 당 기관지로 인식되어 있어 그 보도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나 향후 정책을 가능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정책결정자, 엘리트, 그리고 여론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등, 각 행위자의 관심과 이익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뉴스를 구성해야 한다(Gamson & Modigliani 1989). 이 때문에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얻는 주요 정보원인 언론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내용이 구성된다. 슈메이커와 리즈는 이 요소를 다섯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위계 모형 (hierarchical model)을 제시했다. 그 모델에 따르면 뉴스 취재 관행 (Media routine), 언론사의 이데올로기 (organizational level), 기자 개인의 차원 (individual level), 정책결정자 관련이나 광고 경쟁과 같은 외부 차원 (Social-institution level), 문화와 사회 구조 시스템 차원 (social system level)은 뉴스 구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언론의 기능을 작동한다는 것이다 (Shoemaker & Reese 1996).

다수의 연구는 북한에 관한 국내 언론 보도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뉴스 콘텐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그 때문에 북한에 관한 국내 언론의 주요 연구는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와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 즉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언론 보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김종태 2018; 이완수·손영준 2011; 권호천 2017). 그러나, 북한 이슈에 관한 외신 보도는 언론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뉴스 프레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며 외신기자의 개인 차원에 따라 뉴스 보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Moon 2019). 따라서, 정부, 정책결정자, 엘리트, 그리고 여론을 반영하고 기자 개인의 성향이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재구성되는 언론보도는 같은 사안에 관한 뉴스 기사라 할지라도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해석될 수 있다. 엔트만은 이러한 언론의 정의와 해석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프레임’이라고 정의했다 (Entman 1991). 즉, 프레임이란 기사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적인 뉴스 틀과 속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사는 사회의 현실을 언어적 표현 요소를 활용해 이야기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구성하게 되는 데 이런 요소가 통합적으로 작용해 그 뉴스가 표상하고 있는 핵심 가치, 즉 프레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곽정래·이준웅 2009; Entman 1991).

이준웅(2001)은 언론이 현실을 재구성해 기사를 생산해 내는 과정에

서 만들어지는 해석의 틀, 즉 ‘프레임’을 분석하는 것은 뉴스 텍스트가 보여주고 있는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뉴스 기사 분석은 단순한 뉴스 내용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사의 텍스트가 상징하고 있는 그 현실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준웅 2001; Entman 1993). 즉, 그 기사가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의제는 곧 그 사회의 관심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의제에 대한 프레임은 곧 그 사회의 여론과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 관한 이슈는 단순히 남북 간 단지 국내 사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다른 동맹국들과의 외교 관계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 사회적 이슈이다 (이완수·손영준 2011; Cha & Pardo 2023). 그러므로, 외신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관해 고찰하는 것은 한반도 이슈에 관한 수퍼파워인 미국의 인식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외신 보도, 특히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 기사 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뉴스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고려했다.

글로벌 뉴스 미디어의 세계 최대 통신사는, 미국의 AP, 영국 로이터 통신(Reuters), 프랑스의 AFP 통신이다. 물론 영국 로이터 통신은 독일 이민자가 1851년 런던에 설립했으나 현재 캐나다 톰슨 가(the Thomson family)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회사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McPhail 2014). 이러한 세계 경제와 미디어 산업 측면에서 학자들은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같은 금융 정보와 시사 뉴스가 주로 서양 및 선진국을 뜻하는 ‘the Global North’에서 나머지 국가 ‘the Global South’로 흐른다고 보았다(McPhail 2014; Thussu 2009). 그러므로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의제는 글로벌 의제가 되고 외신이 어떻게 보도하는가는 많은 영역에서 세계 여러 국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언론학에서는 뉴욕타임스나 CNN과 같은 미 주류 언론사를 “의제 설정자”로 인식한다(문미리 2021). 즉 그

매체가 주목하는 이슈가 세계 주요 언론사의 이슈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Conway, Kenski & Wang 2015; McCombs & Shaw 1976; Tan & Weaver 2013). 주지하다시피, 언론 보도는 여론과 외교 및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외신 보도의 주요 의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전략적 외교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법안 관련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 기사를 분석해 언론이 주목한 이슈와 뉴스 프레임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 미·영 뉴스데이터 수집 및 기사 분석 방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직역하면 anti-ideology culture reactionary law’이지만 해외 뉴스 기사에서는 ‘anti-reactionary thought law’ 또는 ‘anti-reactionary law’로 간단히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영문 단어 ‘anti-reactionary’, ‘reactionary law’, ‘thought law’와 ‘North Korea (북한)’을 키워드로 사용해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기사를 수집했다. 뉴스 수집 기간은 법이 제정된 월인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기사 수집은 주로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는데 (문미리 2023), 위의 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충분한 기사 검색이 어려웠다. 미국과 영국 언론사는 총 10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는데, 저자가 구글(Google) 사이트에서 읽었던 로이터통신 기사는 위의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되지 않았고, 주요 언론사가 아닌 데일리메일 온라인(Mail Online)과 같은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기사가 추출되었다. 그 원인으로는 이 법에 관한 기사 수 자체가 매우 적고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극히 소수의 뉴스 기사를 추출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같은 검색 키워드를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 각각 입력하여 뉴스 기사를 전수조사했다.

48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5호 (2023)

뉴스 프레임 분석 방법은 광정래와 이준웅이 자세히 소개한 것과 같이 헤드라인이나 인용구와 같은 “특수한 표현 요소들이” 뉴스 분석을 위해 유용하기 때문에 기사의 헤드라인과 뉴스 정보원을 중심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광정래·이준웅 2009, 202). 추출한 뉴스데이터 빈도와 각 언론사의 뉴스 헤드라인을 다음 <표 2>와 같이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표 2> ‘반동사상문화배격법’관련 외신보도 기사 빈도와 뉴스 헤드라인

		언론사	뉴스 헤드라인
1	UK	더 가디언 (The Guardian) 2021/07/19	Young North Koreans told to shun slang and ‘cultural penetration’ from South
2	US	LA 타임즈/AP 통신 (LA Times/AP 통신) 2021/8/27	U.N. asks North Korea to clarify alleged shoot-on-sight order
3	UK	로이터통신 (Reuters) 2021/10/12	North Korea cracks down on foreign media, speaking styles
4	UK	로이터통신 (Reuters) 2021/10/12	It's an allegory: N.Korea website says ‘Squid Game’ reflects S.Korea's ‘beastly’ society
5	UK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 2021/10/12	North says dystopian Netflix hit ‘Squid Game’ exposes South Korea’s ‘beastly’ reality
6	UK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 2021/10/13	North Korea says Netflix hit exposes ‘beastly’ neighbour
7	UK	텔레그래프 (Daily Telegraph) 2022/09/14	North Korea punishes troops for singing and telling jokes
8	UK	텔레그래프 (Daily Telegraph) 2023/02/25	Christians being sent to labour camps and executed in North Korea

9	UK	일요일 텔레그래프 (The Sunday Telegraph) 2023/02/26	North Korean Christians facing new wave of terror: Believers hunted down and executed while their families sent to camps as persecution intensifies
10	US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 2023/03/30	North Korean Executions and Torture Alleged in New Report: South Korea releases 450-page document as President Yoon Suk Yeol adds pressure on Pyongyang over rights abuses
11	UK	텔레그래프 (Daily Telegraph) 2023/06/08	The rise of North Korea's most dangerous woman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사의 뉴스 기사 빈도수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영국 주요 신문사인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인디펜던트지, 그리고 가디언지 등은 미국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반동사상배격법’에 관해 다수의 뉴스 기사를 보도해, 영국 언론이 이 의제에 관해 상당한 뉴스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뉴스 헤드라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북한은 한국의 넷플릭스(Netflix) 드라마 ‘오징어 게임(Squid Game)’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인기가 북한 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다시 말해 외신은 북한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문화의 ‘소프트파워’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의 빈부 격차를 풍자한 ‘오징어 게임’이 곧 ‘끔찍한(beastly)’ 한국 사회의 실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한국 사회와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배격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 헤드라인과 함께 외신 보도에 나타나는 반동사상이나 반동 문화가 어떻게 정의되고 처벌법 시행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에 관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 부문에서는 미·영 언론의 주요 프레임을 요약하고 실제 기사의 내용을,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국문으로 번역해 정리했다.

3. 외신보도 담론의 주요의제 및 특징

<표 3> 외신보도에 나타난 주요 의제와 처벌 내용

	주요 의제	규정 및 처벌 내용
1	남한의 미디어 소지	최대 15년 노동교화소에 수감
2	남한, 미국, 일본 밀수품 유통	사형
3	남한의 유흥, 한국인의 말투	엄중한 벌금이나 징역형
4	남한의 미디어나 예술품 소지	15년형
5	남한 코미디, 케이팝(K-pop), 한·미 미디어 시청·보관·배포	규제 및 중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
6	외국 미디어 시청, 선정적인 춤추는 행위, 한국인처럼 말하는 행위	부모가 징역형
7	남한 용어, 옷차림	남한 옷차림, 남한 언어 금지
8	남한 미디어 소지, 배포	남한 미디어 배포 시 사형, 남한 콘텐츠 소지 또는 유포시 감옥형
9	김정일의 자녀 교육: 김정은 김여정의 한국 드라마/ 미 영화 시청 사실 외부 유출 차단	(주체사상에 대한) 반동사상 범죄행위를 처벌하도록 해 김정은 김여정에 대한 루머와 소문 사전 차단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외신 뉴스 보도에서는 주로 남한, 미국, 일본의 불법 자료와 남한 미디어 콘텐츠 소지에 관한 의제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외신은 이 법의 도입이 이 국가 중 특히 ‘자본주의 국가’ 미디어, 특히 남한의 미디어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인식했다. 예를 들어, “12월에는 남한, 미국, 일본의 불법 자료를 통해 유입되는 반동적 사상과 문화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법을 도입했다. 남한의 미디어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15년 동안 노동교화소에 갇힐 수 있으며” (더 가디언 2021/07/19), “이 법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다른 '적대적'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LA 타임스 2021/8/27), “데일리NK가 입수한 법규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남한 미디어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15년의 수용소에 갇힐 수 있는 등 새로운 '반동사상'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로이터통신 2021/10/12), “이 법은 특히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의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보유 또는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규제하고”(텔레그래프 2022/09/14), “2020년 북한 정권은 남한 미디어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람들을 처벌하고 투옥하는 새로운 '반동 사상법'을 시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2023/03/30), “북한은 남한을 거지들이 득실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비난하며 이웃 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 또는 K-드라마로 널리 알려진 인기 TV 프로그램이 김 위원장의 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인디펜던트 2021/10/13) 고 보도하며 북한 내에서 한국의 K-컬처의 영향력, 즉 한류에 대해 보도했다.

특히 미·영 언론은 한국 드라마와 함께 남한의 케이팝(K-pop) 영향이 북한 내에서 사상과 문화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1990년대 중반 기근을 겪으며 자란 20~30대 북한 밀레니얼 세대를 타락시키는 '악성 암(vicious cancer)'으로 케이팝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더 가디언 2021/07/19), “한 북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공연 중 몇몇은 남한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비슷한 농담을 했고, 다른 이들은 남한 가수처럼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를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했다고 말했다.”(텔레그래프 2022/09/14)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노래, 춤과 같

은 케이팝에 주목했다. 특히 외신은 북한이 케이팝(K-pop)에 대해 부정적으로 프레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외신은 북한이 “K팝 스타들이 대기업의 '노예' 취급을 받으며 남한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 2021/10/12).

이 외에도 외신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관련 남한의 말투나 문화에 대해 처벌받는 내용을 주요 의제로 보도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 영향과의 전쟁을 강화하고 자국 내 엔터테인먼트 개선을 촉구하면서 남한의 유흥을 즐기거나 한국인의 말투를 따라 하다가 적발되면 엄중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2021/10/12), “김 위원장은 K팝(한국 대중문화)이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투,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이라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면 북한이 “축축한 벽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북한 관영 매체는 경고했다.” (인디펜던트 2021/10/13), “라디오 자유 아시아는 자녀가 외국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 부모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텔레그래프 2023/02/26)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나타나는 주요 의제와 보도 특징을 살펴본 결과, 텔레그래프가 2023년 6월 8일 보도한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이성윤 교수의 책, “더 시스터 (The Sister):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의 내용을 토대로 김정일 시대부터 자녀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그들이 한국 및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는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뉴스 데이터 대부분에서 의미하는 ‘해외 미디어(foreign media)’나 ‘문화(culture)’는 한국의 미디어나 한국식의 언어와 문화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신은 K-컬처와 한국 영화, 드라마와 같은 K-미디어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북한은 케이팝(K-pop)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북한 권위주의 정부가 남한의 케이팝(K-pop)을 ‘악성 암’로 규정하고 홍보하면서 남한의 문화가 선정적이고 타락한 문화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해 북한 주민이 남한의 엔터테

인먼트 프로그램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2020년 통과시킨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의 대중문화가 미디어를 통해 북한 사회,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미·영 뉴스보도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핵심의제는 무엇이고 그 보도 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 언론매체에 나타나는 법령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프레임 되어 의미화되고 있으며 이 의미화 전략이 제시하는 함의는 무엇인지 고찰했다. 분석 결과, 우선, 뉴스 구성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외신 보도의 뉴스 정보원의 기제 활용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외신이 북한에 관한 뉴스토픽을 포함해 한반도 이슈에 관해 보도하는 기사에서는 주로 국내 주요 언론사를 주요 뉴스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기사에서는 자유 아시아 방송이나, 데일리NK 뉴스와 같은 북한 문제에 특화되어 있고, 영문판을 갖춘 매체의 활용이 두드러졌다. 또한 보도 내용 면에서 외신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명시하는 '해외국가'나 '외부', '적대국'을 주로 한국, 미국, 일본 문화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북한 내 외부 문화의 미디어 매체물을 시청하거나 소유했을 때 처벌이나 처형된 사례에서 쓰인 '정보'나 '문화'가 뜻하는 것은 주로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와 K-컬처를 의미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케이팝(K-pop)에 관한 토픽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뉴스데이터에서는 '한류'라는 직접적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 결

과는 외신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K-컬처의 ‘소프트파워’가 가장 고립된 국가 북한에서 특히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 인권 보호단체들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시행에 대해 유엔에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유엔 보고관들도 국제 인권법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 보장 의무에 근거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집행된 처형 건수에 대한 정보제공을 북한에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의 대응이나 답변은 없는 상태다(LA 타임즈 2021/8/27).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것처럼, K-컬처의 ‘소프트파워’가 가장 평화적인 형식으로 북한 주민 개인의 선호도, 기호에 영향을 미쳐 70년 이상 분단된 남과 북의 문화차이를 좁혀줄 수 있는 잠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K-컬처의 ‘소프트파워’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노출될 수 있는 방송 기술과 방송법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시행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압박하고, 처형 또는 사형에까지 이르게 하는 극단적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평화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곽정래·이준웅. 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조선일보] · [한겨레] 등 5 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196-217.
- 김수정. 2008. “영어교육열풍에 대한 텔레비전 담론: 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 『한국방송학보』 22권 5호, 7-52.
- 김종태. 2018. “북한 핵의 문제화와 국가 정체성의 구성:< 조선일보> 와 <한겨레> 담론 비교.” 『아세아연구』 61권 1호, 113-147.
- 김호준·하채림. 2023. “김영호 “北, 외부정보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해야.” 『연합뉴스』(8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4055151504> (검색일: 2023/8/30).
- 문미리. 2021. “컴퓨터 텍스트 분석 툴(Tool)을 활용한 글로벌 뉴스미디어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뉴스 프레임 분석: BBC와 CNN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61권, 5-58.
- 문미리. 2023. “대북제재에 관한 뉴욕타임즈 뉴스보도: 코퍼스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 69호, 117-163.
- 박진아. 2020.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II. 정보의 자유의 국제적 보호와 북한의 관련 법제」. 통일연구원.
- 홍제환·최지영·정은아·정은미·조정아. 2021. 「조선노동당제8차 대회분석(2):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통일연구원.
- 선상신·김성해. 2011. “북한 언론과 대외정책: 6자회담 보도를 통해서 본 북한 엘리트의 프로파간다 전략.” 『북한학연구』 7권 1호, 255-296.
- 유대근. 2023. “김정은의 디즈니 사랑, 영화 ‘겨울왕국’으로 북(北) 청소년 영어교육.” 『한국일보』(5월 11일), 5.
- 이완수·손영준. 2011.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56호, 175-193.
- 이준웅. 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프레임 구성 방식이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441~482.
- 이지영. 2021. “글로벌 1위 등극 ‘오징어 게임’...”K-드라마 고전적 표현에

- 서 벗어났다." 『중앙일보』(9월 25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514> (검색일: 2023/7/30)
- 장슬기. 2023.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최초 입수... "어떤 계층 누구든 극형"." 『DailyNK』(3월 21일). <https://www.dailynk.com/20230321-4/> (검색일: 2023/5/30)
- 최재호. 2023. "북(北), 영어 교재로 디즈니 '겨울왕국' 사용...상류층 자녀 들만." 『동아일보』(5월 12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512/119261820/1> (검색일: 2023/7/30)
- 한명섭. 2022.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27권, 115-156.
- "A Global Strategy for the European Un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https://www.eeas.europa.eu/eeas/global-strategy-european-unions-foreign-and-security-policy_en (검색일: 2022/8/23).
- Bennett, A. 2000. *Popular music and youth culture: Music, identity, and place*. London: Macmillan.
- Cha, V. & Pardo, R.P. 2023. *Korea: A New History of South and North*.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Castells, M. 2011. "Network theory: A network theory of pow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5, 773-787.
- Conway, B. A., Kenski, K., & Wang, D. 2015. "The rise of Twitter in the political campaign: Searching for intermedia agenda-setting effects in the presidential primary."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0(4), 363-380.
- Entman, R. M. 1991. "Framing U. 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6~27.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 Giddens, L. A. & STAIR. 2017. "Feature interview: Lord Anthony Giddens in Conversation With STAIR." *St Anthony's International Review* 13(1), 14-24.
- Giroux, H. A. 1995. "Animating youth: The Disneyfication of children's culture." *Socialist Review* 24(3), 23-55.
- Iwabuchi, K. 2002. *Recentring globalization: Popular culture and Japanese transnation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Kim, K. H. 2014. "Examining US news media discourses about North Korea: A corpus-bas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25(2), 221-244.
- McCombs, M.E. & Shaw, D.L. 1976. "Structuring the "unseen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26(2), 18-22.
- McPhail, T. 2014. *Global communication: Theories, stakeholders, and trends*. Fourth edition, Wiley Blackwell.
- McQuail, D. 2010.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Sage publications.
- Miller, T., Govil, N., McMurria, J., Maxwell, R., & Wang, T. 2005. *Global Hollywood 2*.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 Mitchell, T. 2001. *Global noise: Rap and hip-hop outside the USA*.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Moon, M. 2019. *International news coverage and the Korean conflict: The challenges of news reporting*. Palgrave Macmillan: Springer.
- Nye, J. S. 1990.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 Nye, J.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Rich, T. 2014. "Propaganda with purpose: Uncovering patterns in North Korean nuclear coverage, 1997-2012."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4(3), 427-453.
-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https://rm.coe.int/16806c0385> (검색일: 2023/09/27).
- Scott, A. J. 2004. "Hollywood and the world: The geography of motion-picture

- distribution and marketing.”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1), 33-61.
- Shoemaker, P.J. and Reese, S.D. 1996. *Mediating the message*. White Plains, NY: Longman.
- So, W. & Duarte, F., 2020. “Cartographers of North Korea: Who are they and what are the technical,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volved in mapping North Korea.” *Geoforum* 110, 147-156.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Tan, Y. & Weaver, D. H. 2013. “Agenda diversity and agenda setting from 1956 to 2004: What are the trends over time?.” *Journalism Studies* 14(6), 773-789.
- Thusu, D. K. 2009. “Internationalize media studies.” *Television & New Media* 10(1), 162-164.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text=Article%2019,media%20and%20regardless%20of%20frontiers> (검색일: 2023/8/8).
- Vineyard, J. 2021. “‘Squid Game’: Wondering if You Would Survive? Here’s What to Read”, 9,29.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1/09/29/arts/television/squid-game-netflix.html> (검색일: 2023/02/26).
- Von Eschen, P. M. 2004. *Satchmo blows up the world: Jazz ambassadors play the Cold Wa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gnleitner, R. 1994. *Coca-colonization and the Cold War: The cultural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in Austria after the Second World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Wasko, J. 2001. *Understanding Disney: The manufacture of fantasy*. Cambridge: Polity Press.

투고일 : 2023년 9월 15일 . 심사일 : 2023년 9월 25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0월 2일

* 문미리는 영국 브루넬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International News Coverage and the Korean Conflict: The Challenges of Reporting Practices』 (영문 단독저서), 『셀러브리티: 미디어, 셀럽 문화, 셀러브리티화에 대해』 (공 번역서) 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대북제재에 관한 뉴욕타임즈 뉴스보도: 코퍼스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언론보도” 외 다수가 있다.

<Abstract>

K-Culture and th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News Reporting

Miri MOON
(Ky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key topics and legal interpretations of North Korea's "Anti-Reactionary Thought Law," enacted in December 2020. It analyzes media coverage of the law to assess the influence of K-culture on North Korea, often termed the most isolated country, employing Joseph Nye's concept of "soft power." Specifically, this research analyzes UK and US news coverage of th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is not only a domestic concern but also an international one. The study reveals that the 'reactionary thought culture' mainly pertains to South Korean, US, and Japanese culture. Notably, K-pop was identified as a primary influence on North Korean millennials. Furthermore, UK and US media predominantly sourced information about enforcement cases and the full text of the law from DailyNK and Radio Free Asia. This article emphasizes the critical need for South Korea, in tandem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eacefully address the Anti-Reactionary Law that restricts basic human freedoms and rights.

Keywords : K-Cultur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K-Pop, Soft Power, North Korean millennials